

덴처 포렌식: 추측이 아닌 근거로 접근하는 의치 진단과 해결

송 영 균 / 단국대학교 치과병원 치과보철과

의치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는 해부학적 이해, 인상채득, 변연 및 연마면의 형성, 치아 배열, 교합과 같은 기본 요소들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. 본 강의에서는 문제가 있는 의치를 단순히 불편한 보철물로만 바라보기보다, 그 안에 담겨 있는 여러 임상적 단서를 차분히 살펴보고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. 이를 통해 유지, 안정, 지지와 관련된 문제를 보다 근거 있게 이해하고, 임상에서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을지, 또한 의치 제작의 각 단계에서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면 좋을지 함께 나누어보고자 한다. 강의에서는 먼저 의치의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각 부위와 여러 해부학적 요소들이 의치상의 형태와 연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, 특히 하악 의치에서는 이러한 해부학적 특징이 유지와 안정에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함께 돌아보고자 한다. 아울러 교합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, 환자가 호소하는 다양한 불편을 어떠한 근거로 이해할 수 있을지 차분히 나누어보고자 한다. 본 강의를 통해 의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, 추측보다는 근거에 바탕을 둔 진단과 해결의 방향을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.

학력 및 경력

- *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졸업
- * 단국대학교 치과병원 치과보철과 수련
- * 단국대학교 치의학박사 (치과보철학 전공)
- * 현,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교수
단국대학교 세종치과병원 치과보철과장, 중앙기공실장.